

사 내 한

CN 09-42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Sept. 18, 2002

2009.10.23 (통권271호)

경제 이슈

- 미국의 경기 안정화됐거나 완만한 개선
- 2010년 적자성 국가채무 200조원에 육박

경영 노트

- 지속가능경영의 성공 키워드: '단순화 하라'

차이나 리포트

- 2009 중국경제 '바오파(保八)' 유력시

저널 브리프

- 세계 리더들의 post-금융위기 시대에 대한 5대 제언

洗心錄

- 인맥 관리의 중요성

□ 미국의 경기 안정화됐거나 완만한 개선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21일)가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각 지역에서 경기가 안정화를 나타내거나 완만한 개선을 나타냄
 - 소비지출 : 소비지출의 회복세가 몇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
 - 제조업 : 미국 전역에서 제조업 분야의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제조업 생산 상승률은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제조업 분야의 개선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남
 - 고용, 임금, 물가 : 고용의 회복세는 저조하게 나타났고 임금과 물가 상승 압력도 미국 전역에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택 부문 호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부문은 중저 가격 주택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냄
 - 은행, 금융 서비스 : 대출의 수요는 감소를 나타냈고 연체나 체납 등의 증가 추세로 인해 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됨
 - 상업용 부동산 : 상업용 부동산은 지속적인 약세를 나타내며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역별,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주택과 제조업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경기는 완만히 개선될 전망

□ 2010년 적자성 국가채무 200조원에 육박

- 정부(19일)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 + 금융성)는 2008년 309조원에서 2009년 365조원, 2010년에는 40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자성 채무 급증 :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08년 132.6조원에서 2009년 197.9조 원, 2010년에는 227.8조 원에 달해 그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금융성 채무: 반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자산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기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176.4조원에서 각각 196.8조원, 209.2조원으로 완만히 증가
 - * 적자성 채무는 정부의 세입을 초과한 지출로 인해 발생하며, 세금을 더 걷어서 메울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
- 향후, 적자성 채무의 급증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약화되고 국민의 세 부담은 증가되는 만큼 정부는 예산 집행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 지속가능경영의 성공 키워드: '단순화 하라'*

- 최근 기업 성공 전략으로 환경 및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 투입 요소나 활동을 단순화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단순화 전략이 요청
 - 최근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음
 - 이에 더해 기존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추진하였던 단순화 전략에 지속가능 요소인 환경과 사회적 이익을 고려
- 기존의 단순화 전략 vs. 지속가능한 단순화 전략
 - (기존 전략)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경영의 단순화를 도모하여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함
 - (지속가능한 전략) 기존의 단순화 전략 수단에 지속가능경영에서 요구하는 재생 및 재활용의 개념을 고려하여 전략을 재구성
- 선진 기업들은 자원, 공정 과정, 최종 제품의 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단순화 전략을 수행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음

< 경영 요소별 단순화 전략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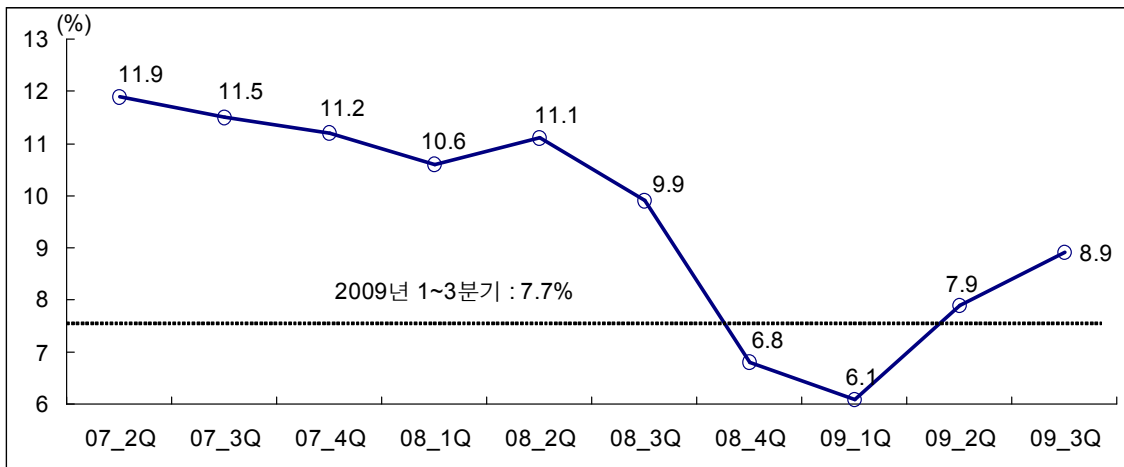
차 원	세 부 내 용
1. 자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조기 제조업체 캐리어(Carrier)는 각 생산 라인에서 다른 종류의 증기 압축 펌프 사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 모든 작업장에 호환이 되며 환경 친화적인 압축 펌프로 교체하여 운영 비용은 물론 환경 비용까지 절감
2.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키(Nike)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솔벤트 사용량의 80%를 절감하는 공정 기술을 개발 • 이를 모든 종류 신발의 제조 공정에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
3. 제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록스(Xerox)는 해체가 쉽고 내구성이 강한 사무기기를 개발 • 또한 카트리지를 재활용하기 쉽도록 디자인을 단순화하였으며, 이후재활용 카트리지 시장의 90%를 점유

*본 자료는 AT Kearney의 "Reuse, Recycle and Reduce Complexity"를 요약 정리함

□ 2009 중국경제 ‘바오파(保八)’ 유력시

- 10월 23일 국가통계국은 3/4분기와 1/4~3/4분기 GDP 증가율이 각각 8.9%, 7.7%에 달해 연내 8% 경제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
 - 지표상으로 보면 3분기 중국 경제는 전형적인 V자형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4분기 이후 중국경제성장률은 한 자릿수 대로 추락, 올 1/4분기 6.1%를 기록함으로써 저점 통과
 - 3/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8.9%(1~3/4분기: 7.7%)를 기록하여 2/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급등세로 전환

< 중국경제 성장률 추이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주요내용) 중국경제의 회복세는 투자 급증이 견인한 것으로 소비와 대외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투자 :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른 공공투자의 급증으로 3/4분기까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33.4% 증가
 - 공공부문은 약진한 반면, 민간부문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음

- 소비 : 1/4~3/4분기 소비 증가율은 15.1%를 기록, 완만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위기 이전의 20% 대의 증가율에는 훨씬 못 미침
 -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고, 소득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수출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수출은 1/4~3/4분기 동안 20% 이상의 하락을 보임
 - 올 들어 3/4분기까지 중국의 수출은 21.3% 감소, 수입은 20.4% 감소하여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2009년 중국경제는 ‘바오파’가 유력시되지만, 그 이면에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 지표상으로는 CPI와 PPI 증가율이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주요 소비재의 가격이 급상승
 - 식료품 중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 가격은 2/4분기 이후 다시 급상승세로 반전
 - 또한 7월과 8월 잠시 주춤했던 금융기관 대출도 9월 들어 다시 5,000억 위안 선을 넘고 있어 과잉유동성 논란이 다시 제기됨
 - 자산버블 : 2009년 들어 주택가격과 증시의 급등세는 ‘자산가격 회복’이라는 장막으로 ‘버블’을 가리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거래량에 비해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시는 실적과 무관한 유동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음
- (시사점) 내용 상 미흡한 점이 많지만, ‘바오파’는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시도는 중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 리더들의 post-금융위기 시대에 대한 5대 제언*

- 최근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리더들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질서 및 기업들의 성공 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였음

< 세계 리더들의 5대 제언 >

제언	내용
포지티브섬 게임을 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을 할 것을 제안 · CEO는 최고보다 독창성을 지향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포지티브섬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아시아에서 성장 기회 찾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균형 성장과 경제적 통합·협력이 위기 이후 세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은 세계 리더들의 공통된 의견 - 특히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세계 경제의 미래가 ‘하나의 아시아’를 만드는 데 달렸다고 강조
저성장·더블딕 대비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현재는 세계 경제가 급한 불만 끈 상태로 경기가 다시 하강할 ‘더블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음 · 기업들은 건정성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모럴해저드 등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개방·소통·참여 기업 만들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커뮤니티인 트위터의 공동창업자 비즈 스톤은 “미래로 다가갈수록 기업의 개방성이 중요해진다”고 강조 - 트위터의 성공은 “개방된 의사소통”이라는 가치를 고객이 제대로 알게 함으로서 가능했음 · 기업들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함
맥락 효과를 활용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시아드대의 지브 카몬 교수는 “소비자 심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충고하였음 · 이를 위해 맥락효과(Context effect)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맥락효과란 인지적 착각 현상의 일종으로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나 관념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이론을 지칭함

* “세계지식포럼이 던진 5대 메시지”(매경Economy, 2009.10.28) 참조

□ 인맥 관리의 중요성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대 사회는 점차 좁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무작위로 선택된 두 개인을 서로 연결하려면 중간에 몇 단계가 필요한지를 조사한 사회연결망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평균 3.6단계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서너 단계만 거치면 다 알게 된다는 얘기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조사에서도 5.5 단계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와 국토의 차이도 있지만 한국 사회는 학연과 지연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특히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좁은 세상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평생 동안 알게 되는 지인(知人)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사회학자 솔라 풀(Sola Pool)은 평균 3,500명 정도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인연을 맺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크라이슬러의 전 회장인 아이아코카는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쳐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인적 네트워크, 즉 인맥의 중요성을 잘 대변한 말이다. 좋은 인맥을 얼마나 구축하고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좋은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과의 유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스쳐가는 인연을 소중히 하되, 자신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신과 인생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몇 단계만 거치면 연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시금 새겨볼 말은 아닐까?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은 어느 때라도 반드시 15분 전에 도착한 덕분이다.

- 벨슨 (1758~1805) : 영국의 해군 제독